

# “이번 설엔 대중교통 막차연장 없어요” 서울시, 취약계층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감염재생산지수 1.02 설 연휴 교통수단 방역 집중 “명절 이동 자제 강력히 당부”

서울시는 8일 올 설 연휴 기간에는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 성묘길 버스 노선 증회 같은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관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영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수단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 터미널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 승무원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및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요령을 사전에 교육하기로 했다. 또 터미널 내에는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를 설치하고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노선 버스 증회 운영을 모두 미실시하고,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확진자가 나온 업소(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 마스크를 끼지 않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관련해 ‘확진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일만에 200명대로 내려간 8일 오전 서울 영등포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가 발생한 업소(시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향후 확진자가 나온 업소의 경우 CCTV, 역학조사 기술을 통해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서대문구 소재 운동시설에서 이용자 1명이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시는 해당 시설 관계자를 포함해 접촉자 총 328명을 검사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6명, 음성 261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실내운동시설은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강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하는 등 방역 수칙은 준수했으나 대기할 때 또는 운동이 끝난 후 이동 중 일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강사가 여러 운동시설에 출장 지도하며 다른 운동시설 이용자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돼 추가 조사 중”이라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실내운동시설에서는 손 소독, 운동기구 표면 소독, 환기를 실시하고 음식 섭취 및 샤워실 운영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한 달간 1미만으로 유지되다가 지난주 1.02로 상승했다. 시는 의료기관, 사우나 시설, 음식점, 체육시설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관내 확진자 중 집단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월 2~3째주 20%대에서 1월 넷째주와 2월 첫째주 30% 이상으로 증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관내 155개 지역복지관서 진행

서울시는 신축년(辛丑年) 설을 맞아 ‘따뜻하고 촘촘하게 안전을 지키는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돌보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관내 155개의 지역 복지관에서 272개의 비대면 중심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트로트 공연, 율놀이, 새해 덕담 나눔, ‘쿡방(음식조리 방송)’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 시는 홀몸 어르신, 쪽방촌 주민, 한부모 가정을 포함 총 1390가구에 식품과 생필품, 설 맞이 특별선물을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시민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하는 명절”이라며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설에도 ‘코로나 방역체계’ 강화

### ‘2021년도 경기도 설 특별교통대책’

경기도가 설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안전한 교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1년도 경기도 설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년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경각심 완화와 이동 자제의 피로감 등으로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귀경 또는 나들이 인파로 이동량이 증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내·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상시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차량과 터미

널에 대해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더불어 예방수칙에 대해 차량내부 홍보물과 G-BUS TV 등을 통해 계속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버스 등 승차권 예매 시 온라인 예매와 승차권 발매기를 이용한 비대면 구매를 확대하고 창가 좌석을 우선 예약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이후 운행해오고 있는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연휴기간 상관없이 계속 운영한다. 이는 해외 입국자를 일반 승객과 분리,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지역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인천공항과 도내 주요 거점 정류소를 오가는 10개 노선을 일일 40회 운영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에버랜드, 설 연휴 ‘티익스프레스’ 재가동

에버랜드가 설 연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에버랜드는 설 연휴 기간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14일에는 7시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설 연휴 첫 날인 11일부터 ‘티익스프레스’를 본격 재가동한다. 지난 달 동계 운휴를 마치고 다시 관람객들을 태우게 되는 것.

카니발 광장에서는 율놀이와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 기회와, 매일 2회에 걸쳐 대표 캐릭터인 레니와 라라가 한복을 입고 포토타임을 함께 한다.

판다월드에서는 아기판다 ‘푸바오’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오른쪽)와 어미 판다 아이바오. /에버랜드

도 나온다. 푸바오는 지난해 7월 태어나 올해 들어 관람객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버랜드는 에버랜드 애플리케이션 내 ‘레니찬스’에서 소규모 인원이 순차 관람하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 운행제한 위반 5등급차 ‘5.8만건’ 단속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운행제한 단속된 차 전년비 88% ↓ 월별 적발 건수, 작년보다 9% 증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관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지난 두 달간 단속된 차량은 1만7939대(중복 단속 차량 7564대)이며, 총 단속 건수는 5만7527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간(작년 12월 1일~올해 1월 31일, 평일 41일 실시)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403대로 전년 동기 1만1532대와 비교해 87.8% 줄었다. 반면, 월별 적발 건수는 작년 12월 2만7543건에서 올해 1월 2만9984건으로 8.9%(2441건) 증가했다.

실제 단속된 5등급 차량의 6%인 1079대만이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취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한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을 환급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정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마쳐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여의나루~동작역 사이 ‘녹색길’ 재탄생

### 자연광 조명·계단 쉼터 등 마련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한강대교 남단, 여의나루~동작역 사이 한강변 5.6km 구간을 자연을 느끼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친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고 8일 밝혔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여의나루역~원효대교 강변길은 흙과 돌 같은 자연

소재로 이뤄진 공원 속 녹색길로 변신한다. 보행로와 자전거길 사이에는 피녹지를 만들고,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셋강으로 이어지는 넓은 길에는 빛나무를 추가로 심는다.

한낮에도 어두운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하부의 경우 햇빛을 차단하고 있던 철판(노량대교구교-신교사이)을 없애고 자연광 조명을 단다. 한강을 바라보

며 걸 수 있는 계단 쉼터도 마련한다.

주거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흑석나들목에는 한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신설하고, 운동기구 존(zone)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열 수 있는 휴게 시설도 곳곳에 생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공사가 끝나면 ‘공원 속 녹색길’, ‘커뮤니티 나들길’ 같은 테마별 보행로와, 여가시설 9개소가 조성돼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8 | 해질 / 18:05

2월 9일 (화)  
음력 : 12월 28일

수도권 날씨  
-6 ~ 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10/4
- 동두천 -9/5
- 가평 -10/4
- 파주 -10/4
- 서울 -6/4
- 양평 -8/4
- 수원 -5/4
- 용인 -5/4
- 평택 -8/5
- 백령도 -2/6
- 인천 -5/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